



1 익산청년센터 청숲 전경 2 2021 익산시 청년 취업박람회 3 청년단체 소통간담회



익산시 청년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익산형 근로 청년수당'이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익산형 근로 청년수당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도내 최초로 추진한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사업도 인기를 끌고 있다.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익산시가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창업, 주택,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업 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으로 넓혀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돕기 위해 익산시는 임차 주택 보증금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협약을 맺고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율 최대 3%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2%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익산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숲세권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얻기부터 복지 혜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복지까지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전북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 청년나래 일자리를 통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180만 원, 최장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익산시는 워드 코로나 시대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 창업'이 떠오르면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청년 창업아카데미와 청년 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사업부터 차량을 이용한 창업 시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드림카 지원, 창업 초기 공간 확보 등 인프라 지원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 중소기업



2021 익산 서동 축제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
11월 6일 **토** ~ 11월 28일 **일**
금마서동공원